

#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강 철 희

(연세대학교)

## [요 약]

한국인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총 3,319명의 설문 참여자가 제공한 응답 자료에 기초해서, 심리학, 문헌정보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과 같은 사회과학분야 학문들 그리고 생물학, 의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분야 학문들과의 비교 차원에서 한국인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학문에 대한 개인적 흥미도, 사회적 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전문성, 개인적 지식정도 측면에서의 인식을 8-점 Likert 척도로 평정, 비교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학에 초점을 두고 성별 요인과 고등학생,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시민과 같은 지위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대학생 및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문적 배경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개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인 흥미도와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의 벡터(vector)는 나이를 통제했을 때 성별 요인과 지위 요인에 의해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학문적 배경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학문의 모습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복지학이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학문의 전문성 심화 과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주제어: 사회복지학, 한국인의 인식, 학문의 정체성, 학문의 전문성

## 1. 서 론

일반 대중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 자선조직협회 운동과 인보관 운동을 시작으로 사회복지학이 오랜 기간의 노력을 통해 전문직업적 학문의 모습을 정착시켜 왔다. 동시에 미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은 일반 대중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를 간접적이거나 꾸

준히 파악하면서 직업과 학문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의 사회복지학<sup>1)</sup> 전통과 유럽의 사회정책학 전통을 통합하여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직업학문으로서의 위치를 꾸준히 자리매김 해 온 한국의 사회복지학 역시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김인숙, 2004; 김태성, 2004; 이해경, 1996)을 통해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복지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전문영역을 넓혀 넓은 학문적 지형을 구축하여 왔고 연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강화를 통해서 고유한 지식을 개발하며 응용 사회과학으로서의 지위를 나름대로 꾸준히 구축해 왔으나, 사회복지학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핵심 구성원인 일반 대중이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연구를 전혀 진행시키지 못한 결과, 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실정이다.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한국에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은 발전을 위한 경로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해경, 1996). 1953년 중앙신학교가 YMCA의 후원으로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하고, 1958년 서울대학교가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한 이후, 꾸준한 학과 신설과 함께 발전하여 온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며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230여개 4년제 대학교 중 91개 대학교에 사회복지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총수는 2004년 기준으로 남자 7,278명, 여자 14,042명으로서 학생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에도 사회과학 학문의 영역에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학문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4).

그러나 사회복지학을 설치하는 대학교의 수가 팽창하고 전공학생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일반적인 통계치들은 사회복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정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2004 학과정보'에 따르면, 취업률에 있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들의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계열(87.9%), 의학계열(87.2%), 예·체능 계열(64.4%), 경영·경제학계열(60.1%)과 공학계열(60.1%)등의 학과들과 비교할 때,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사회복지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48.51%로 심리학(44.9%) 졸업자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기타의 학문 영역 졸업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전문대학 졸업자들만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77.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4년제 대학교 졸업자들만을 고려한다면 그 수준은 낮은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2003). 그리고 2002년 중앙고용정보원의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종사자의 일년 평균 임금은 1,663만원으로써 전체직업 일년 평균임금인 1,934만원 보다 271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러한 통계치 역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 미국에서는 사회사업학(social work)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아직까지는 더 일반적이나 한국에서는 사회복지학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회사업학을 사회복지학으로 일괄적으로 칭하여서 용어의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피해 보고자 한다.

한편 대학교에서의 사회복지학의 이미지 역시 학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과 크게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일반화를 시키는데 있어서는 제한점이 있기는 하나, 4년제 대학교 9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04년 8월의 시점에서 손난희(2005) 등이 조사한 학문 분야 별 평균 교수 수를 보면, 사회복지학 전공은 타과에 비해 임용된 교수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4년제 정규 대학교들 중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인터넷 상에 올라있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수를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는 학문 분야인 생물학, 물리학, 의학 전공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문헌정보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전공 등과 비교해 보면, 비교의 의미가 적은 의학 전공(평균 258.22명) 부문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외교학, 생물학, 물리학, 경제학 전공의 경우 평균 15명에서 20명 이상이며, 사회학, 신문방송학 전공의 경우도 평균 8명이 넘는 데 반해, 사회복지학 전공은 가장 낮은 규모를 갖는 심리학 전공의 7.56명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복지학 전공 교원 규모의 실체는 바로 한국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즉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복지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란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앞에서 검토해 본 통계치를 통해 그 인식의 현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인식의 실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접적인 이해와 예측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이해를 실제로는 전혀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 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학 혹은 사회복지사에 초점을 두고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간헐적이거나 꾸준히 진행되어져 왔다.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학문간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방향에서 연구가 설계되어지지 않아 응답자들의 사회적 바람직함의 편향 문제(social desirability bias)를 야기하는 한계를 내포하기는 하나,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어 이 주제에 대한 이해의 축적 수준이 우리와는 차이를 갖는다.

학문의 성격과 방향은 사회적으로 배태(embedded)되어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사회문제의 해결 및 인간 복지 실현 등의 실질적인 과제를 갖는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으로써 학문적 성격과 방향이 사회적으로 배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더욱 많이 갖고 있다. 사회적 배태성이라는 속성을 더욱 많이 내포하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있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즉 사회복지학의 학문 영역 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스스로에 대한 이해, 즉 내부자적 시각에서의 인식도 중요할 수 있으나, 같은 비중에서 혹은 더 큰 비중에서 외부자의 이해 역시 사회복지학의 모습을 객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복지학이 학문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우리 학문에 요구되는 과제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점, 그리고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사회복지학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자연과학 학문분야(의학, 물리학, 생물학) 및 6개의 사회과학 학문분야(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문헌정보학, 심리학)와 사회복지학을 객관

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 방식을 선택하여, 먼저 각 학문에 대한 흥미도와 전문지식, 각 학문의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등과 같은 6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학의 상대적인 위치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사회복지학이 속한 사회과학분야의 6개 학문들과 비교해서 사회복지학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에 만 초점을 두고, 성별 요인과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시민과 같은 범주로 구성되는 지위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문적 배경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성인 1,011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 1,643명, 고등학생 665명, 즉 총 3,319명으로 구성된 표본을 기초로 사회복지학을 포함하는 10개 각 학문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번도 연구되지 않은 주제인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구성된 표본을 기초로, 다른 학문과 비교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 양상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면서 한국 사회복지학이 갖는 과제 및 발전의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는 연구의 표본을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제한점, 그리고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에만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연구 모두를 혼합해서 선행연구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 2. 선행연구검토

학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그렇게 빈번하게 연구되어지는 주제는 아니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 연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전무하고 외국에서도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관련된 문헌이 풍부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 연구는 전문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식 연구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연구와 혼용되어져 학문과 직업 및 직업인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아울러 학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양한 학문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되지 못하는 제한점들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는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 결과 및 측정 방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기초로 삼아보고자 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연구가 실행되지 않았다. 타 사회과학분야의 경우,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는 심리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차재호, 1979) 등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사회복지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가 전혀 진행되어지지 않아 왔다. 특히 학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있어 사회적 바람직함의 편향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 상대적 비교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데, 국내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심리학을 포함한 모든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에 기초한 연구가 한번도 진행되어지지 않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더 오랜 사회복지학의 역사를 갖는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된 조사 연구가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져 왔다. 미국에서 실행된 연구들의 특징을 보면, 사회복지학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인식 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들, 즉 간접적으로 사회복지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해 볼 수 있게 하는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실행된 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 파악 연구는 이를 최초로 조사한 카두신(Kadushin, 1958)과 바로우(Barlow, 1963)에 이어 콘다이, 한슨, 랭, 모스와 케인(Condie, Hanson, Lang, Moss, and Kane, 1978), 카프만과 레이몬드(Kaufman and Raymond, 1995-1996), 그리고 최근 르크로이와 스티슨(LeCroy and Stinson, 2004) 등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이긴 하나 꾸준히 계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왔다.

카두신(1958)은 조사연구를 통해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순위 매김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순위 매김에서 개인차가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즉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에 있어 사람들이 다소의 혼돈을 갖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혼돈은 사회복지사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복지직 자체가 갖는 모호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회복지직이 사회에서 갖는 지위의 취약함을 논의한다. 바로우(1963)도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분명하게 그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기보다는 매우 모호한 이해를 갖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대해서도 빈곤에 대해서 봉사하는 직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이해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의 실체라고 설명한다. 이 두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직이라는 직업의 기능에 대해 각기 부분적인 인식만을 갖고 있고 개인의 관심과 경험에 근거해서 다소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콘다이 외(1978)는 250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식을 방문조사를 통해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1950년대에 비해 1970년대 일반 시민들의 사회복지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제한적이거나 확장되고 제고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대부분이 친숙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직업은 아니나 위안을 줄 수 있는 직업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육에서는 대학교 수준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직업인 것으로 사회복지직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고 학교, 병원, 정부조직, 시민조직, 가족상담센터, 교도소 등의 다양한 곳에서 사회복지직이라는 직업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학문의 속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직의 사회적인 공헌도와 필요성 및 개인의 이해도는 적절한 수준에서 인식되어지고

있으나, 전문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 각자에 대한 유용성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는 않음을 이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인식을 갖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혼재되어져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연구 목표로 삼은 연구는 아니지만, 샤펀리(Sharpley, 1986)는 호주에서 정신건강 분야에서 활동하는 네 가지 영역의 전문인들 즉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식과 태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 역시 호주에서의 사회복지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이 매우 가치 있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사회복지직이 심리학에 기반한 전문직의 활동보다 5배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호주에서의 사회복지직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사회복지학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개인적 관심과 흥미도가 높고,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공헌도도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하겠다.

반면, 미국의 상담전공학자들로서 정신건강 분야의 네 가지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각 전문직과 전문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연구한 폴, 레비토브, 제닝스와 에버츠(Fall, Levitov, Jennings, and Eberts, 2000)는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와 같은 네 가지 전문직업 중에서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에 있어 다른 직업들에 비해 사회복지직의 전문적 도움의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일반 시민 190명을 무선 표집한 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어떤 전문가가 가장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도록 한 이 연구에서, 일반시민들은 사회복지사에 비해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박사학위를 갖는 상담가 집단에 대해 더 높은 순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타 학문분야에서 실행되었고 비록 정신건강의 분야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이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은 수준이고 중요성과 공헌도에 대해서도 높게는 평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연구는 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사회적으로 배태되어지는 경향성이 강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990년대에 들어서도 일부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져 있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 알라바마(Alabama)주의 452명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연구한 카프만과 레이몬드(1995-1996)는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의 장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가 미진하고, 동시에 일반 시민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 특

히 태도의 구성에 있어서 측정 문항 4개 중 3문항이 전문성에 관한 문항이고 나머지 1문항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호감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항들로 구성된 태도 부분에서의 측정 결과를 보면 일반 시민들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사회복지의 다양한 활동의 장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직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이해는 상황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직이라는 단일 대상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므로, 즉 사회복지직에 대한 이해를 객관화시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사점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장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다각적 노력이, 특히 전문성과 관련해서 사회복지학 학문 영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본다.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적으로 구성된 386명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직이라는 전문직업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객관적 관점과 개인적으로 연관되었을 때의 관점 등 두 가지 관점 차원에서 조사한 르크로이와 스티슨(LeCroy and Stinson, 2004)은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그들은 위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2000년대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지식 등이 정확하고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일반 시민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인의 직업적 가치가 간호사나 성직자보다는 낮으나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전문상담가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및 노숙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사가 가장 효과성이 높거나 동등한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 같은 전문 직업에 대해서 순위를 매길 경우, 응답자들은 사회복지사를 정신과의사, 종교지도자, 심리학자, 일반 의사 가운데 중간 정도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행복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지고 있고 우호적인 경향성이 있기는 하나, 2000년대에도 여전히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동시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낮은 수준의 유망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위의 연구 결과는 시사해 준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복지학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인 전문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직,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및 이해 등이 대체로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들은 일반 시민들이 대체로 사회복지학에 대한 친숙

함 등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복지학의 중요성과 사회적 공헌도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의 전문성과 개인 수준에서의 유망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 상황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즉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배태되어지는 특성을 지닐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학 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연구를 하나 혹은 두 개의 측면(single dimension)에 초점을 두면서 단순하게 파악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multi-dimensions)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접근을 시도하면서 보다 통합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아울러 위의 선행연구들은 어느 하나의 학문에 대한 태도와 이해 등에 초점을 두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이 사회적 바람직함의 편향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을 동시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안적 방법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선행 연구들은 연구 대상에 따라 사회복지학 등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인식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성할 때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 시민 혹은 전공자, 클라이언트와 정책 결정자나 입법자 등과 같은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면서 위에서 언급된 보다 적절한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Condie et al., 1978; LeCroy and Stinson, 2004). 즉 각 학문의 장래 전공자를 의미할 수 있는 고등학생, 각 학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반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 시민 모두를 포괄해 내는 자료를 구성하고, 동시에 각 학문과 관련해서 특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들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면서, 이들 각자가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학문분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 3. 연구질문

본 연구의 목표와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는 바를 반영해서 설정한 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학 6개 학문분야(심리학, 문헌정보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및 자연과학 3개 학문분야(생물학, 의학, 물리학)와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학에 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개인적 흥미도, 사회적 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전문성, 개인적 지식 측면에서의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복지학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사회과학영역 6개의 학문 전반(심리학, 문헌정보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과 사회복지학을 비교해 보았을 때, 6개의 사회과학 학문 전반에 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개인적 흥미도, 사회적 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전문성, 개인적 지식 측면에서 볼 때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복지학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볼 때, 사회복지학에 대한 6가지 측면(개인적 흥미도, 사회적 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전문성, 개인적 지식정도) 인식 전반이 나이를 통제하는 경우 지위 요인(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일반 시민)과 성별 요인(여성과 남성)에 의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사회복지학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볼 때, 사회복지학에 대한 6개 측면(개인적 흥미도, 사회적 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전문성, 개인적 지식정도) 인식 전반이 나이를 통제하는 경우 전공 요인(사회복지 전공자, 기타 인문사회과학 전공자, 자연과학 및 예체능 전공자)과 성별 요인(여성과 남성)에 의한 차이가 있는가?

즉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현황을 다른 학문과의 비교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사회복지학의 상대적인 위치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인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만을 초점화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6가지 측면에서의 인식 전반이 현재의 인구사회적 지위 요인과 성별 요인 그리고 학문과의 특수한 관계를 의미할 수 있는 전공 요인 등의 배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명되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4.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무작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대상을 구성하지는 못하였다. 즉 본 연구는 다양한 대상자 범위를 고려하면서 접근 가능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성인 1,011명(남자 548명, 여자 463명; 평균연령 33.80세; 연령의 표준편차 9.43세), 대학생 및 대학원생 1,643명(남자 470명, 여자 1,173명; 평균연령 22.33세; 연령의 표준편차 4.13세), 고등학생 665명(남자 255명, 여자 410명; 평균연령 17.05세; 연령의 표준편차 .93세)을 포함하여 총 3,319명(남 1,273명, 여 2,046명)으로 구성된 표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주로 중산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서울시내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구성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 성별과 학과별 균형을 고려해서 전국의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 자료를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연구원이 접근 가능한 개인 그리고 회사의 직원, 학교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 20개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에 대한 협력을 얻어 연구 자료를 구성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두가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동의하였으며,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의 구성원들로부터 설문에 대한 협력을 얻어 연구 자료를 구성할 때에는 이들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 직업 등의 다양한 분포를 고려하였다.

## 2) 설문진행 절차

고등학생 집단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 승인을 얻은 해당 학교의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자유 활동을 해도 좋다고 허락한 후에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유활동을 택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대학생 집단은 정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수업의 강사가 설문지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에 대한 설문지 유형의 배포는 무선적으로 하였다. 일반 시민 집단은 대부분 회사나 공공 기관을 통해서 집단으로 실시하였고,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접촉한 소규모의 사람들은 개인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평균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학문에 대한 이미지 파악을 위한 학문간 공동연구라는 점을 강조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학과 같은 특정학문에 대한 요구효과(Ome, 1962)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지 자체와 연구목적에 관한 참여자들의 추가질의는 없었다.

## 3) 측정도구의 개발: 학문에 대한 이미지 평정 설문지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측정도구 개발자들은 사회복지학과 심리학 영역의 선행연구, 특히 콘다이와 그의 동료의 연구(1978), 샐리(Sharley, 1986)의 연구, 카프만과 레이몬드(1995-1996)의 연구, 르크로이와 스티슨(2004)의 연구 그리고 심리학 영역에서의 잔다(Janda et al., 1998)외 의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학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영역들로 다음의 5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첫째, 학문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흥미도(Farberman, 1997; Guest, 1948; Sharley, 1986; Wood와 동료, 1986), 둘째, 학문의 사회 공헌도(Condie와 동료, 1978; Janda와 동료, 1998; LeCroy와 Stinson, 2004; Sharley, 1986; Wood와 동료, 1986), 셋째, 장래 유망도(LeCroy와 Stinson, 2004; Dollinger and Thelen, 1978), 넷째, 학문의 중요도(Condie와 동료, 1978; Janda와 동료, 1998; LeCroy와 Stinson, 2004; Sharley, 1986; 차재호, 1979), 다섯째, 일반사람들과 그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와 같은 전문가 간의 지식차이를 말하는 전문성(Benjamin, 1986; Farberman, 1997; Janda와 동료, 1998; Kaufman과 Raymond, 1995-1996; LeCroy와 Stinson, 2004; Witley, 1959) 등이다. 아울러 이 5가지 영역에 더해 전문성 영역을 보완하는 항목으로, 해당 학문에 대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즉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학문분야에 대한 개인지식 정도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여 총 6가지 영역에서 각 학문에 대한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을 포함하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관찰되어지는 제한점, 즉 비교 학문이 고려되어지지 않아 사회적 바람직함의 편향 문제가 있거나, 소수의 전문직업 분야만을 비교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준거가 불충분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직업적 학문영역도 포괄해서 사회복지학을 포함해서 7개의 사회과학 분야 학문과 3개의 자연과학 분야 학문, 즉 총 10개 분야의 학문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가 아닌 사회과학

분야 내에서의 이미지 비교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 사회복지학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교의 사회과학 분야에 속하면서 전문직업적 학문 속성을 갖거나 혹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성을 갖는 사회과학 분야의 6개 학문들을 선정하였다.

학문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위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표적 학문인 사회복지학을 위시하여, 생물학, 의학, 물리학, 문헌정보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등의 10개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면서 a) 응답자의 흥미도, b) 사회에 공헌하는 정도, c) 장래 유망성, d) 학문적 중요성, e) 일반 사람들과 각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사이의 그 학문에 대한 지식 차이 즉, 전문성, f) 개인지식 정도 등 6개의 영역 각각에서 각 학문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비교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를 설계하였다.

각 영역은 8점 Likert 척도로서 '1'은 그렇다, 중요하다, 혹은 흥미롭다 그리고 '8'은 그렇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혹은 흥미롭지 않다 등으로 구성하면서 질문 영역에 따라 적절한 평정 수식어를 써서 반응하도록 하였다.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6개 질문 영역과 10개 학문 분야가 무선적 순서로 제시되도록 두 가지 질문지 형(A, B형)을 준비하였다. 본 연구자를 포함한 측정도구 개발자들은 심리학 전공생 31명에게 이 측정도구를 3주 간격으로 검사하고 재검사해 보았는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10개 학문 각각 .66에서 .85범위에 속해 있었고, 전체 평균은 .77이었다. 전체 대상에 대한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값은 .65에서 .79까지의 범위에 속하고, 평균은 .72이었다. 신뢰도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의 표집수가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신뢰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갖고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하였다(Nunnally, 1967).

####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관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10개의 학문분야 각각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통계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응답자가 학문 인식을 위한 6개의 측정 영역 각각에서 열개의 학문 분야에 대해서 응답하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10개의 학문 분야 문항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방식에서 측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사람간의 차이를 요인으로 보고, 각 응답자 내에서 열개의 학문 각각에 대한 문항을 반복 측정할 때마다 나타나는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단일요인 반복측정 설계의 신뢰성을 MANOVA(문수백, 변창진, 1999)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학과 나머지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본 연구는 6개의 각 영역에서 각 학문 문항이 독립적으로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6개의 영역 각 영역 별로 paired t-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적 주제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어, 사회복지학에 대한 6개 영역에서의 인식 벡터(vector)가 특정 요인들에 따라서 차이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특정 연속 변인에 의해서도 그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MANCOVA(박광배, 2000)를 활용하여 6개의 영역에서 측정된 사회복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vector)과 특정 요인들 및 연

속 변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5. 분석결과

### 1) 기초적인 분석: 10개 학문 간의 차이 인식의 독립성과 관련된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각각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각 응답자가 6개의 학문 인식 측정 영역 각각에서 10개의 학문 분야를 놓고 응답하기 때문에, 각 측정 영역에서 10개의 학문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람간의 차이를 요인으로 설정하고 각 응답자 내에서 10개의 학문 영역을 반복 측정할 때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MANOVA를 통해서 단일요인 반복측정 설계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10개 학문분야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적 흥미도, 사회에 대한 공헌도, 장래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전문성, 개인 지식 등의 6개 영역에서의 반복 측정에 대한 MANOVA를 각각 실시한 결과, 6개 영역 각각에 대한 MANOVA 분석결과는 6개 영역 모두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MANOVA F 값은 340.05에서 721.65까지이고, Wilk's Lamda 값은 .32에서 .50까지이며, 모든 측정 영역의 p 값은 .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영역 각각에서 각 응답자는 학문 간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각 질문 영역별 반복측정 결과

	Wilk' s Lamda	df	F
흥미도	0.376	9	571.13*
공헌도	0.347	9	647.34*
유망성	0.375	9	572.21*
중요성	0.377	9	569.01*
전문성	0.323	9	721.65*
개인지식	0.503	9	340.05*

주: \* $p < .001$  N=3,104

### 2) 각 학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분석 결과: 사회복지학과의 비교

이 연구가 갖는 첫 번째 연구 질문인 각 학문 분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평균과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적인 통계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각 학문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6개의 측정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3,319부의 자료 중, 사

회복지학전공생들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상향편향(upward bias)이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탐색해보는 차원에서 사회복지학의 경우에는 전공생 215명을 제외한 나머지 3,104명에 대한 분석(표 2의 사회복지학b)과 더불어 이들을 포함시킨 3,319명에 대한 분석(표 2의 사회복지학a)도 함께 병행해서 학문 인식의 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사회복지학a의 평균은 4.35; 사회복지학b의 평균은 4.54)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의학(평균 4.6), 경제학(평균 4.79), 신문방송학(평균 4.8), 심리학(평균 5.71)보다는 더 낮으나 생물학(평균 3.91), 물리학(평균 3.11), 문헌정보학(평균 3.09), 정치외교학(평균 4.14)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그리고 사회학과(평균 4.55)는 비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만 살펴보면, 경제, 신문방송학, 심리학에 이어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포함시킨 경우와 제외한 경우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나, 타 학문과의 전반적인 비교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순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공헌도(사회복지학a의 평균은 5.51; 사회복지학b의 평균은 5.60)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의학(평균 6.68), 경제학(평균 5.81)보다는 더 낮으나 생물학(평균 5.56)과 비슷한 수준이고, 물리학(평균 5.39), 신문방송학(평균 5.29), 심리학(평균 5.16), 사회학(평균 5.13), 정치외교학(평균 5.12), 문헌정보학(평균 4.26)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만 살펴보면, 경제학의 다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포함시킨 경우와 제외한 경우의 차이가 적고, 타 학문과의 전반적인 비교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순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유망도(사회복지학a의 평균은 5.65; 사회복지학b의 평균은 5.74)에 있어서는, 공헌도와 마찬가지로 높게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학(평균 6.52), 경제학(평균 5.82)보다는 더 낮으나 신문방송학(평균 5.63), 심리학(평균 5.60), 생물학(평균 5.35), 정치외교학(평균 5.27), 사회학(평균 4.95), 물리학(평균 4.92), 문헌정보학(평균 4.17)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만 살펴보면, 공헌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다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포함시킨 경우와 제외한 경우의 차이가 적고, 타 학문과의 전반적인 비교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순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중요도(사회복지학a의 평균은 5.84; 사회복지학b의 평균은 5.93)에 있어서는 공헌도 및 유망도와 마찬가지로 높게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의학(평균 6.81), 경제학(평균 6.05)보다는 더 낮으나, 심리학(평균 5.73), 생물학(평균 5.73), 정치외교학(평균 5.47), 사회학(평균 5.47), 신문방송학(평균 5.37), 물리학(평균 5.42), 문헌정보학(평균 4.51)보다는 더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만 살펴보면, 공헌도 및 유망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다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포함시킨 경우와 제외한 경우의 차이가 적고, 타 학문과의 전반적인 비교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순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항상 제기되어져 왔던 이슈인 사회복지학의 전문성(사회복지학a의 평균은 4.69; 사회복지학b의 평균은 4.77)에 있어서는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와는 많이 다르게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의학(평균 7.10), 물리학(평균 6.63), 생물학(평균 6.30), 심리학(평균 5.86), 경제학(평균 5.56), 정치외교학(평균 5.43)보다 매우 낮게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전공자들을 포함한 경우나 사회복지 전공자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신문방송학(평균 5.03), 문헌정보학(평균 5.01)과 사회학(평균 4.91)보다도 학문적 전문성이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 분야와의 비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와 비교했을 때,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와는 다르게 사회복지학은 가장 전문성이 낮게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같이 낮게 인식되어진다는 것은 사회복지학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는 전반적인 이해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표 2> 학문에 대한 6개 측정 영역별 10개 학문분야 각각에 대한 인식 분석

학문분야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
심리학	평균	5.71	5.16	5.60	5.73	5.86	4.12
	표준편차	1.98	1.75	1.77	1.67	1.60	1.69
생물학	평균	3.91	5.56	5.35	5.73	6.30	3.15
	표준편차	2.02	1.70	1.72	1.72	1.46	1.52
의학	평균	4.60	6.68	6.52	6.81	7.10	2.95
	표준편차	2.08	1.42	1.58	1.46	1.41	1.51
물리학	평균	3.11	5.39	4.92	5.42	6.63	2.79
	표준편차	1.95	1.82	1.93	1.90	1.50	1.59
문헌정보학	평균	3.09	4.26	4.17	4.51	5.01	2.87
	표준편차	1.73	1.63	1.59	1.69	2.06	1.45
경제학	평균	4.79	5.81	5.82	6.05	5.56	3.81
	표준편차	1.95	1.56	1.49	1.49	1.61	1.72
사회학	평균	4.55	5.13	4.95	5.47	4.91	3.82
	표준편차	1.85	1.62	1.58	1.53	1.50	1.64
정치외교학	평균	4.14	5.12	5.27	5.47	5.43	3.18
	표준편차	1.96	1.87	1.75	1.70	1.67	1.48
신문방송학	평균	4.80	5.29	5.63	5.37	5.03	3.47
	표준편차	1.97	1.66	1.59	1.64	1.47	1.55
사회복지학a	평균	4.35	5.51	5.65	5.84	4.69	3.72
	표준편차	1.97	1.65	1.72	1.65	1.59	1.6
사회복지학b	평균	4.54	5.60	5.74	5.93	4.77	3.87
	표준편차	2.05	1.66	1.73	1.65	1.62	1.68

주: 1) 사회복지전공생을 제외한 경우(사회복지학a)에 N = 3,104. 사회복지전공생을 포함한 경우(사회복지학 b)에 N = 3,319명.

2) 모든 질문영역에서 평정범위는 1~8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징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지식의 측면을 보면, 사회복지학에 대한 개인적 지식의 정도(사회복지학a의 평균은 3.72; 사회복지학b의 평균은 3.87)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비교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적 지식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물리학(평균 2.79), 문헌정보

학(2.87), 의학(평균 2.95), 생물학(평균 3.15), 정치외교학(평균 3.18), 신문방송학(평균 3.4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순서로 각 학문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개인적 지식은 전공자들을 포함한 경우나 전공자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위에서 언급한 학문분야들보다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개인적 지식의 정도가 좀더 높고 경제학(평균 3.81)과 사회학(평균 3.82)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학(평균 4.12)보다는 좀 더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만 볼 때, 사회복지학에 대한 개인지식의 정도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비교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인은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의 측면에서는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흥미도와 개인지식의 정도에서는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성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복지학의 상대적인 위치가 전문성 영역에서의 인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측정 영역에서 조사된 사회과학 분야 학문 중에서 매우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관련해서 이러한 비교 차원에서의 결과는 사회복지학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지녀온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서 사회복지학의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를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 3) 사회복지학과 기타 사회과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

10개의 학문분야 중 사회복지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덜한 자연과학 분야 세 개를 제외한 후, 사회복지학에 제외한 사회과학 6개 학문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의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과정은 각 응답자가 학문에 대한 이미지를 6개의 각 측정 분야별로 10개의 학문 분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응답하는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감안하는 t 검증, 즉 종속집단 t 검증(Huck and Cormier, 1996)을 사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t 검증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회복지학에 대한 상향편향(upward bias)이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탐색해 보는 차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전공생들을 제외시킨 표본과 포함시킨 표본 각각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전공생들 215명을 제외시킨 표본에서의 사회복지학과 나머지 사회과학 학문들에 대한 인식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6개 사회과학분야의 평균에 비해 사회복지학의 평균이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개인지식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흥미도와 전문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hen의 효과크기 범위는 .46에서 .63이었고, 평균은 .56이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전공생들 215명을 포함시킨 표본의 사회복지학과 나머지 사회과학 학문들에 대한 인식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을 제외시킨 표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6개 사회과학분야의 평균에 비해 사회복지학의 평균이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개인지식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전문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흥미도에서는 사회복지학과 6개 사회과학분야의 평균이 통계적인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Cohen의 효과크기 범위는 .45에서 .61이었고, 평균은 .56이었다.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측정 영역에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등에서 사회복지학은 더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즉 더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성에서는 더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즉 더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다른 사회과학분야에 비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즉 지식 숙련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학에 대해 한국인이 인식하는 지식 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흥미도에 있어서는 표본에 따라 차이를 갖기는 하나 사회복지전공생들을 포함한 표본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다른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흥미도와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사회과학의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흥미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표 3〉 학문 인식 관련 각 측정 영역에서의 사회복지학과 다른 사회과학학문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문분야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
사회복지학a	평균	4.35	5.51	5.65	5.84	4.69	3.72
	표준편차	1.97	1.65	1.72	1.65	1.59	1.6
	다른사회과학	평균	4.51	5.13	5.24	5.43	5.30
	표준편차	1.22	1.22	1.11	1.18	1.14	1.18
	t value	- 5.13*	15.46*	16.30*	17.00*	- 24.69*	7.66*
	Cohen's d	0.46	0.57	0.58	0.60	0.52	0.63
사회복지학b	평균	4.54	5.60	5.74	5.93	4.77	3.87
	표준편차	2.05	1.66	1.73	1.65	1.62	1.68
	다른사회과학	평균	4.54	5.15	5.26	5.46	5.31
	표준편차	1.21	1.22	1.11	1.17	1.14	1.18
	t value	- 0.05	18.31*	19.34*	20.18*	- 21.80*	12.83*
	Cohen's d	0.45	0.57	0.57	0.60	0.52	0.61

주: 1) \*는  $p < 0.001$ 을 의미한다.

2) 사회복지전공생을 제외한 경우(사회복지학a)에  $N = 3,104$ . 사회복지전공생을 포함한 경우(사회복지학 b)에  $N = 3,319$ 명.

3) 모든 질문영역에서 평정범위는 1 ~ 8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징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 4) 사회복지학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에 대한 MANCOVA를 이용한 분석 결과

다음에서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6개의 측정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이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설정하면서 보다 충분하게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MANCOVA 모델을 이용하여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성, 전문성, 개인지식의 벡터(vector)가 다음의 인구사회적 배경 요인들에 따라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지위 요인과 성별 요인이 나이를 통제하였



을 때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성, 전문성, 개인지식의 벡터(vector)에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의 기술적 분석 결과와 <표 5>의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표 4> 사회복지학에 대한 측정 각 영역별 두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지위 요인과 성별 요인

구분	지위요인	성별요인	평균	표준편차	N	구분	지위 요인	성별요인	평균	표준편차	N
흥미도	고등학생	남성	3.6706	2.02769	255	개인 지식	고등학생	남성	3.5255	1.73612	255
		여성	4.1244	1.93327	410			여성	3.7927	1.69234	410
		총합	3.9504	1.98084	665			총합	3.6902	1.71290	665
	대학 및 대학원생	남성	4.2468	2.05540	470		대학 및 대학원생	남성	3.6021	1.73426	470
		여성	4.9591	2.09502	1173			여성	4.1799	1.66346	1173
		총합	4.7553	2.10788	1643			총합	4.0146	1.70363	1643
	일반시민	남성	4.1442	1.74918	548		일반 시민	남성	3.6332	1.46206	548
		여성	5.0864	2.01216	463			여성	3.8596	1.71312	463
		총합	4.5757	1.93123	1011			총합	3.7369	1.58521	1011
	총합	남성	4.0872	1.93392	1273		총합	남성	3.6002	1.62224	1273
		여성	4.8206	2.07408	2046			여성	4.0298	1.68891	2046
		총합	4.5393	2.05240	3319			총합	3.8650	1.67648	3319
공헌도	고등학생	남성	5.4353	1.88517	255	유망도	고등학생	남성	4.8275	1.94654	255
		여성	5.5268	1.74695	410			여성	5.3854	1.75735	410
		총합	5.4917	1.80035	665			총합	5.1714	1.85078	665
	대학 및 대학원생	남성	5.5702	1.63072	470		대학 및 대학원생	남성	5.4638	1.75400	470
		여성	5.9199	1.51118	1173			여성	6.1765	1.52747	1173
		총합	5.8198	1.55388	1643			총합	5.9726	1.62722	1643
	일반시민	남성	5.0620	1.59174	548		일반 시민	남성	5.3663	1.63780	548
		여성	5.6069	1.72231	463			여성	6.1814	1.71621	463
		총합	5.3116	1.67416	1011			총합	5.7399	1.72190	1011
	총합	남성	5.3244	1.68349	1273		총합	남성	5.2946	1.76098	1273
		여성	5.7703	1.61866	2046			여성	6.0191	1.64952	2046
		총합	5.5993	1.65782	3319			총합	5.7412	1.72915	3319
전문성	고등학생	남성	4.3216	1.90898	255	중요도	고등학생	남성	4.9922	1.97821	255
		여성	4.1878	1.72890	410			여성	5.7878	1.71470	410
		총합	4.2391	1.79984	665			총합	5.4827	1.85955	665
	대학 및 대학원생	남성	4.8787	1.64173	470		대학 및 대학원생	남성	5.6404	1.70802	470
		여성	4.8960	1.52994	1173			여성	6.2387	1.46027	1173
		총합	4.8911	1.56225	1643			총합	6.0676	1.55835	1643
	일반 시민	남성	4.7391	1.43327	548		일반 시민	남성	5.5785	1.55086	548
		여성	5.1490	1.57271	463			여성	6.4860	1.53717	463
		총합	4.9268	1.51186	1011			총합	5.9941	1.60875	1011
	총합	남성	4.7070	1.62665	1273		총합	남성	5.4839	1.71836	1273
		여성	4.8113	1.61430	2046			여성	6.2043	1.54834	2046
		총합	4.7713	1.61960	3319			총합	5.9280	1.65297	3319

먼저 <표 4>의 요인별 기술적 분석의 결과를 보면, 지위 요인 및 성별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위 요인 중 크게 부각되는 것만을 정리해 보면, 흥미도에 있어서는 고등학생들의 인식 평균이 3.95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공헌도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평균 5.31)이, 전문성에 있어서는 고등학생들의 인식(평균 4.24)이, 개인지식에 있어서는 흥미도 및 전문성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의 인식(평균 3.69)이 가장 낮고, 유망도와 중요도에 있어서는 흥

미도, 전문성, 개인지식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의 인식(각 평균 5.17, 5.4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들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학교에서의 전공 선택과 관련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별 요인을 보면, 전문성에 대한 인식에서만 남성(평균 4.71)과 여성(평균 4.81)의 인식이 근접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섯 가지 측정 영역 모두에서 여성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값을 놓고 볼 때, 흥미도에서는 4.09 : 4.82, 공헌도에 있어서는 5.32 : 5.77, 전문성에 있어서는 4.71 : 4.81, 개인지식에 있어서는 3.60 : 4.03, 유망도에 있어서는 5.29 : 6.01, 그리고 중요도에 있어서는 5.48 : 6.20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에 의한 사회복지학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보다 높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MANCOVA에 의한 다변량 요인 테스트 결과표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Error df	Sig.
절편	Pillai's Trace	.521	600.367	6.000	3307.000	.000
	Wilks' Lambda	.479	600.367	6.000	3307.000	.000
	Hotelling's Trace	1.089	600.367	6.000	3307.000	.000
	Roy's Largest Root	1.089	600.367	6.000	3307.000	.000
나이	Pillai's Trace	.013	7.161	6.000	3307.000	.000
	Wilks' Lambda	.987	7.161	6.000	3307.000	.000
	Hotelling's Trace	.013	7.161	6.000	3307.000	.000
	Roy's Largest Root	.013	7.161	6.000	3307.000	.000
지위 요인	Pillai's Trace	.040	11.226	12.000	6616.000	.000
	Wilks' Lambda	.960	11.232	12.000	6614.000	.000
	Hotelling's Trace	.041	11.239	12.000	6612.000	.000
	Roy's Largest Root	.027	14.631	6.000	3308.000	.000
성별 요인	Pillai's Trace	.061	35.765	6.000	3307.000	.000
	Wilks' Lambda	.939	35.765	6.000	3307.000	.000
	Hotelling's Trace	.065	35.765	6.000	3307.000	.000
	Roy's Largest Root	.065	35.765	6.000	3307.000	.000
지위요인*성별요인	Pillai's Trace	.013	3.582	12.000	6616.000	.000
	Wilks' Lambda	.987	3.583	12.000	6614.000	.000
	Hotelling's Trace	.013	3.583	12.000	6612.000	.000
	Roy's Largest Root	.009	4.893	6.000	3308.000	.000

다음으로 <표 5>의 내용을 중심으로 MANCOVA 모델에 의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나이를 통제했을 때 지위 요인과 성별 요인 그리고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 요인은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전문성, 자기지식, 유망도, 중요도의 벡터(vector)에 큰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 요인과 성별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같은 지위 내에서도 성에 따라서, 즉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전문성, 개인지식, 유망도, 중요도의 벡터(vector)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변량 요인으로 설정된 나이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전반적으로 각 요인들에 대하여 월크스의 램다나 필라의의 대각합, 로이의 최대근에 의한 검증결과 모두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와 <표 5>의 결과로부터 인지되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에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의 모든 측정 영역에서 이들의 인식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회복지학의 내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과제, 특히 향후 대학교에서 전공 선택을 해야만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과제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성별 요인의 경우 여성이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학이 여성 선호의 전문 직업적 학문으로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 사회복지학에 관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인식에 대한 MANCOVA를 이용한 분석 결과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현재 학문의 전당에서 다양한 학문분야들을 접하고 있는 이들이 사회복지학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 역시 의미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의 벡터(vector)가 다른 전공 학문분야들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차이를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즉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이들과 다른 전공을 갖는 이들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MANCOVA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전공, 즉 사회과학영역의 전공, 자연과학영역의 전공, 사회복지전공으로 구성되는 전공 요인과 성별 요인이 나이를 통제하였을 때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성, 전문성, 개인지식의 벡터(vector)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6>의 기술적 분석 결과와 <표 7>의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표 6>의 요인별 기술적 분석의 결과를 보면, 전공 요인 및 성별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공 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학 전공생, 사회과학 영역 전공생, 자연과학 영역 전공생들은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전문성, 자기지식, 유망도, 중요도 모두에서 인식의 큰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흥미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전공생들의 인식 평균이 7.2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공헌도에서도 역시 사회복지전공생들의 인식 평균이 6.87로 가장 높으며, 전문성(평균 6.00), 개인지식(평균 5.99), 유망도(평균 7.00), 중요도(평균 7.23)에 있어서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사회복지학에 대한 측정 각 영역별 두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공요인과 성별 요인

구분	전공 요인	성별 요인	평균	표준편차	N	구분	전공 요인	성별 요인	평균	표준편차	N
홍미도	사회인문계열	남성	3.9518	1.89675	166	개인지식	사회인문계열	남성	3.2952	1.39813	166
		여성	4.6023	1.94773	606			여성	3.8762	1.51123	606
		종합	4.4624	1.95405	772			종합	3.7513	1.50582	772
	자연및예체능	남성	3.6865	1.85305	185		자연및예체능	남성	3.2162	1.66053	185
		여성	4.3560	1.95873	250			여성	3.6960	1.54828	250
		종합	4.0713	1.94082	435			종합	3.4920	1.61268	435
	사회복지	남성	7.3333	.86189	36		사회복지	남성	6.0278	1.42400	36
		여성	7.2682	1.12462	179			여성	5.9832	1.27409	179
		종합	7.2791	1.08356	215			종합	5.9907	1.29698	215
	총합	남성	4.1395	2.07531	387		총합	남성	3.5116	1.72808	387
		여성	5.0039	2.10828	1035			여성	4.1971	1.69303	1035
		종합	4.7686	2.13362	1422			종합	4.0105	1.72917	1422
공현도	사회인문계열	남성	5.5663	1.54679	166	유망도	사회인문계열	남성	5.2831	1.74372	166
		여성	5.8020	1.44213	606			여성	6.0512	1.48458	606
		종합	5.7513	1.46744	772			종합	5.8860	1.57476	772
	자연및예체능	남성	5.2811	1.75602	185		자연및예체능	남성	5.2649	1.72265	185
		여성	5.6160	1.55635	250			여성	5.9400	1.62325	250
		종합	5.4736	1.65062	435			종합	5.6529	1.69751	435
	사회복지	남성	6.6944	1.16667	36		사회복지	남성	6.6667	1.45406	36
		여성	6.9106	1.21454	179			여성	7.0615	1.18113	179
		종합	6.8744	1.20670	215			종합	6.9953	1.23613	215
	총합	남성	5.5349	1.66516	387		총합	남성	5.4031	1.75221	387
		여성	5.9488	1.50122	1035			여성	6.1990	1.52383	1035
		종합	5.8361	1.55790	1422			종합	5.9824	1.62765	1422
전문성	사회인문계열	남성	4.8253	1.59152	166	중요도	사회인문계열	남성	5.4277	1.58522	166
		여성	4.7409	1.43874	606			여성	6.0875	1.46607	606
		종합	4.7591	1.47226	772			종합	5.9456	1.51590	772
	자연및예체능	남성	4.7189	1.56973	185		자연및예체능	남성	5.3892	1.80274	185
		여성	4.5480	1.38251	250			여성	6.0440	1.44305	250
		종합	4.6207	1.46575	435			종합	5.7655	1.63634	435
	사회복지	남성	6.1667	1.52128	36		사회복지	남성	7.1944	1.16667	36
		여성	5.9665	1.55751	179			여성	7.2346	1.10704	179
		종합	6.0000	1.54980	215			종합	7.2279	1.11454	215
	총합	남성	4.8992	1.62324	387		총합	남성	5.5736	1.73702	387
		여성	4.9063	1.52665	1035			여성	6.2754	1.47071	1035
		종합	4.9044	1.55296	1422			종합	6.0844	1.57833	1422

한편 성별 요인을 보면, 전문성에 대한 인식에서만 남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평균 4.90)과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평균 4.91)의 인식이 근접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섯 가지 측정 영역 모두에서 여성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값을 놓고 볼 때, 홍미도에서는 4.14 : 5.00, 공현도에 있어서는 5.53 : 5.95, 전문성에 있어서는 4.90 : 4.91, 개인지식에 있어서는 3.51 : 4.20, 유망도에 있어서는 5.40 : 6.20, 그리고 중요도에 있어서는 5.57 : 6.28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MANCOVA에 의한 다변량 요인 테스트 결과표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Error df	Sig.
Intercept	Pillai's Trace	.480	217.037	6.000	1410.000	.000
	Wilks' Lambda	.520	217.037	6.000	1410.000	.000
	Hotelling's Trace	.924	217.037	6.000	1410.000	.000
	Roy's Largest Root	.924	217.037	6.000	1410.000	.000
나이	Pillai's Trace	.002	.542	6.000	1410.000	.777
	Wilks' Lambda	.998	.542	6.000	1410.000	.777
	Hotelling's Trace	.002	.542	6.000	1410.000	.777
	Roy's Largest Root	.002	.542	6.000	1410.000	.777
전공요인	Pillai's Trace	.252	33.895	12.000	2822.000	.000
	Wilks' Lambda	.749	36.544	12.000	2820.000	.000
	Hotelling's Trace	.334	39.216	12.000	2818.000	.000
	Roy's Largest Root	.330	77.684	6.000	1411.000	.000
성별요인	Pillai's Trace	.031	7.499	6.000	1410.000	.000
	Wilks' Lambda	.969	7.499	6.000	1410.000	.000
	Hotelling's Trace	.032	7.499	6.000	1410.000	.000
	Roy's Largest Root	.032	7.499	6.000	1410.000	.000
전공 요인*성별 요인	Pillai's Trace	.007	.856	12.000	2822.000	.592
	Wilks' Lambda	.993	.856	12.000	2820.000	.592
	Hotelling's Trace	.007	.857	12.000	2818.000	.591
	Roy's Largest Root	.006	1.491	6.000	1411.000	.178

다음으로 <표 7>의 내용을 중심으로 MANCOVA 모델에 의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나이를 통제했을 때 전공 요인과 성별 요인 그리고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 요인들 중에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전문성, 자기지식, 유망도, 중요도의 벡터(vector)에 있어 전공 요인과 성별 요인은 큰 차이를 가지나 전공 요인과 성별 요인의 상호작용 요인은 큰 차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전공 내에서 성에 따라서 즉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전문성, 자기지식, 유망도, 중요도의 벡터(vector)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변량 요인으로 설정된 나이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공 요인과 성별 요인들에 대해서만 윌크스의 람다나 필라이의 대각합, 로이의 최대근에 의한 검증결과 모두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 <표 7>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복지학을 수학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다소 더 높은 경향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학이 아닌 다른 전공 영역에 속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경우에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거의 모든 측정 영역에서 이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는 대학 교육 영역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학에 대한 일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이 사회복지학의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 특히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동시에 교양 교육 등을 통한 사회복지학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 요인의 경우 여자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이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 사회에서도 사회복지학에 대해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갖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전공 요인과 성별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각 전공 영역 내에서 성별에 따라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각 전공 영역 내에서의 성별 요인이, 즉 남성인가 혹은 여성인가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 결론 및 함의

학문 내부적으로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 고민을 가져온 한국사회복지학은 1990년대 이후 학문 영역의 확장 및 학문 교육 기관의 확대라는 외형상의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 동시에 한국 사회복지학은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회복지학의 위상 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보다 객관적이며 정교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2000년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학이 갖는 위상이 어떠한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즉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현재 실제로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 연구가 한번도 진행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실행되어졌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의 제한점들을 고려하면서 국내 사회복지학 인식 연구의 기반을 세워 보고자 했다. 그 제한점들로써는 첫째, 사회복지학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직 혹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간접적인 의미만을 갖는 제한점, 둘째, 연구진행의 시간적인 차이, 즉 연구들의 자료수집 시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 제한점, 셋째, 연구에 포함된 비교학문들의 수와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제한점, 넷째, 측정에 있어서 어떤 연구는 사회복지학에 대한 절대적 평정을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상대적 평정을 갖기 때문에 비교가 실제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 다섯째, 연구대상이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한계를 갖

는 제한점, 여섯째, 각 연구에서 대상자들에게 질문한 내용, 즉 지식과 태도 등의 내용이 혼재됨으로 인해 일관적인 비교가 어렵게 되는 제한점, 일곱째, 사회복지 일반분야에 대한 질문과 정신건강관련분야에 대한 질문 내용이 혼재됨으로 인해 실제적인 비교를 어렵게 하는 제한점 등을 고려하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가 이러한 제한점들을 모두 극복한 것은 아니나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로서 다양한 대상들을 포괄하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다른 학문분야들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리고 사회복지학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를 파악하기 6가지 측정 영역으로 구분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한국 사회복지학 인식 연구의 발판이 되어 보고자 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가지 측정 영역(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 모두에서 각 학문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선행 연구(Janda 등, 1998)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이미지에 큰 차이가 있었다. 자연과학은 대체로 전문성과 공헌도에서는 높게, 흥미도와 개인지식 정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사회과학은 흥미도와 개인지식 정도에서는 높게, 공헌도와 전문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대부분 사회과학에 대해 일반 사람들의 흥미가 높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 학문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 학문이 직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바나 전문성은 자연과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학은 자연과학 분야 학문들 및 다른 사회과학 분야 학문들에 비하여,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의 정도에서는 더 높게, 흥미도와 개인 지식의 정도에서는 중간 정도, 전문성에 있어서는 매우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헌도와 유망도 및 중요도에서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경제학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성에서 사회복지학은 7개 사회과학 학문들 중 가장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복지학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주제인, 즉 학문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영역일 수 있는 전문성 영역에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낮다는 것은 미래의 한국 사회복지학을 위해서 이 주제에 대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앞으로의 한국 사회복지학이 내부적으로 갖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보다 선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셋째,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영역의 학문 6개 전반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학과 다른 사회과학분야 학문 전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등에서 사회복지학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지적한 사회복지학의 전문성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분야에 비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개인 지식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전문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 결과는 사회복지학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는 지식 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즉 지식 숙련이 더 쉽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과학영역 전반과 비교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에서 별다른 큰 차이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흥미가 많이 제고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학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전문성, 개인 지식, 유망도, 중요도의 벡터(vector)가 나이를 통제했을 때 지위 요인과 성별 요인 그리고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 요인에 의해서 차이를 갖는가를 MANCOVA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위 요인(고등학생,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시민)에 따라서, 성별 요인에 따라서 그리고 지위 요인과 성별 요인의 상호작용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 시민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으나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거의 모든 측정 영역에서 일관적으로 낮음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사회복지학의 학문 발전을 위해서 차세대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이들 대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 및 사회복지학의 내용 등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과제가 중요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다섯째, 사회복지학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전문성, 개인 지식, 유망도, 중요도의 벡터(vector)가 나이를 통제했을 때 전공 요인과 성별 요인 그리고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 요인에 의해서 차이를 갖는가를 MANCOVA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공 요인과 성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나 전공 요인과 성별 요인의 상호작용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미지가 높고 다른 전공생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는 대학 교육 영역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학에 대한 일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인식 확장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 하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한국 사회복지학은 한국 사회복지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학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교육은 한국사회복지학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질문은 “사회복지학의 공헌도, 중요성, 유망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문성은 이에 전혀 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이러한 결과는 도대체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갖는 질문은 “사회복지학 전공자의 경우 전문성에 대해서 다른 학문 전공자들에 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는 있으나 왜 이들도 다른 측정 영역에 비해서는 전문성에 대해서 낮게 인식하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연구 결과들은 한국 사회복지학이 오랜 기간 고민해 온 문제인 한국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성의 문제가 2005년도와 현 시점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현실이 내부적인 인식으로, 즉 전공자들의 인식으로 그리고 외부적인 인식으로도, 즉 일반인들의 인식으로도 그대로 반영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이창호(1990)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발전과 함께 사회복지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되는 그 당시 상황에서, 한국 사회복지학이 전문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관심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구비되어 있는가에 질문하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상황에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이태영(2002)과 헤이즈와 미켈슨(Hayes and Mickelson, 1991)이 설명하는 것처럼,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입 기술적인 것, 그리고 가치적인 것으로도 구성되어져 있는 사회복지학의 전문성 부문에 대한 강화 노력이 자칫 잘못하면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는 무관하게 되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데 기여하는 사회 변화와는 무관하게 되어질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할 수는 있다. 즉 전문성의 강화만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성(2004)이 강조하는 것처럼, 분명한 전공 영역의 확보,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의 이론과 실천 역할 분담의 명확화, 사회복지교육에서의 지속적인 교과과정의 정비 및 교과과정별 목표의 명확화, 사회복지학 대상 영역의 초점화 등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학이 앞으로 정체성에 대한 확보 노력과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다 치열한 노력을 경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김민숙(2004)이 제시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복지학의 과학적 지식과 기능적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배가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회의 변동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전공자 스스로에 의한 인정과 더불어 사회적인 인정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에서 전문성과 관련된 사회복지학의 지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아울러 위에서 제기한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사회복지학 전공자 스스로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앞서 제시한 방향에서의 노력과 더불어 보다 심층적인 원인 규명 노력, 특히 다양한 연구 방법의 활용을 통한 우리 스스로의 연구 노력 확대와 심화를 제시해 본다. 즉 앞으로 무엇이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전문성에 대한 사회복지학 전공자 스스로의 인식을 그러한 수준으로 형성케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파악을 위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다각적으로 진행해 볼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적 관점을 통해서 한국사회복지학을 점검함과 동시에 내부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정교히 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 모두를 활용하면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이해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과제를 다시 한번 명료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한국인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미지를 다른 여러 학문들과 비교하면서 사회복지학의 현재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외한 다른 차원의 이해, 즉 사회복지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이해는 측정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즉 원인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통해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표본의 구성이 다양하기는 하나, 무작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본을 구성하지 못한 한계도 갖는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이러한 제한점들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정교하게 한국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인숙. 2004.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2004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pp. 33-53.
- 김태성. 200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정체성』. 2004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pp. 1-32.
- 대학교육협의회. 2004. 대학입학종합정보. <http://univ.kcue.or.kr>.
- 문수백·변창진. 1999.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실험설계 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박광배. 2000. 『다변량분석』. 서울: 학지사.
- 이창호. 1990. “한국사회사업 정체성의 위기와 과제”. 『사회복지연구』 7: 95-110.
- 이태영. 2002.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62-94.
- 이혜경. 1996. “한국사회복지학의 정체성: 역사적 특수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3: 41-57.
- 손난희·김은숙. 2005. “한국 사람들은 심리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심리학』 24(1) 게재 예정.
- 최영순·허필규·이순란·이운선. 2003. 『2004년 학과정보』.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차재호. 1979. “심리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 『한국심리학』 2: 183-189.
- 한국교육개발원. 2003. 교육통계 DB. <http://www.kedi.re.kr>.
- Barlow, W. C. 1963. "Public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Cleveland, Ohio, May.
- Benjamin, L. T., Jr. 1986. "Why don't they understand us? A history of psychology's public image." *American Psychologist* 41: 941-946.
- Condie, C. D., J. A. Hanson, N. E. Lang, D. K. Moss, and R. A. Kane. 1978. "How the public views social work." *Social Work* 23: 47-53.
- Dollinger, S. S., and M. H. Thelen. 1978. "Children's perceptions of psychology." *Professional Psychology* 9: 117-126.
- Fall, K. A., J. E. Levitov, M. Jennings, and S. Eberts. 2000. "The public perception of mental profession: An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 122-134.
- Farberman, R. K. 1999. "Public attitudes about psychologists and mental health: Research guide to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 education campaig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8: 128-136.
- Guest, L. 1948.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3: 135-139.
- Haynes, K., and J. Mickelson. 1991. *Affecting Change: Social Workers in the Political Arena*. Longman.
- Huck, S. W., and W. H. Cormier. 1996. *Reading statistics and research*. New York, NY:

HarperCollins.

- Janda, L. H., K. England, D. Lovejoy, and K. Drury. 1998. "Attitudes toward psychology relative to other disciplines." *Professional Psychologist: Research and Practice* 29: 140-143.
- Kadushin, A. 1958. "Prestige of social work-Facts and factors." *Social Work* 3: 37-40.
- Kaufman, A. V., and G. T. Raymond. 1995-1996. *Public perception of social workers: A survey of knowledge and attitudes*. Aret. 20: 24-35.
- LeCroy, C. W., and E. L. Stinson. 2004.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work: Is it what we think it is?." *Social Work* 49: 164-174.
- Nunnally, J. 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NY: McGraw-Hill.
- Orne, M. T. 1962. "On the social psychology of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demand characteristics and their impl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17: 776-783.
- Sharpley, C. F. 1986. "Public perceptions of four mental health professions: A survey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 psychologists, psychiatrists, social workers and counselors." *Australian Psychologist* 21: 7-67.
- Witley, S. B. 1959. "Public opinion about science and scientists." *Public Opinion Quarterly* 23: 382-387.
- Wood, W., M. Jones, and L. Benjamin. 1986. "Surveying psychology's public image." *American Psychologist* 41: 947-953.

## An Exploration on Public Perception of Social Welfare as a Discipline in Korea

Kang, Chul-Hee  
(Yonsei University)

Efforts to identify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welfare as an academic discipline have never been conducted in Korea since the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1947 at Ewha Womans University. Such efforts are very meaningful in identifying directions and tasks to strengthen Korean social welfare as well as in clarifying and promoting our understanding concerning status of the academic disciplin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degree of the public's perception in Korea with analyzing data surveyed in 2004 by our interdisciplinary research team. This study develops and uses a questionnaire having a Likert scale format that is composed of 8 points and measures the public's perception in the following dimensions: (1) personal interests on academic discipline; (2) contribution of academic discipline; (3) prospect of academic discipline; (4) importance of academic discipline; (5) expertise of academic discipline; and (6) personal knowledge on academic discipline. To avoid social desirability and promote objectivity with comparative measurement, this study selects ten representative academic disciplines as follows: medicine; physics; biology; social welfare; economics; psychology; sociology; political science; library science; and communication & journalism.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1) the degree of the public's perception on ten academic disciplines; (2) the position of social welfare by comparing it with each academic discipline and by comparing mean of social welfare with overall mean of six social science disciplines in the six dimensions; (3) the differences in the public's perceptions of social welfare on six dimensions by the respondents' status factor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and citizens) and gender factor by using MANCOVA, and (4) the differences in the public's perceptions of social welfare on six dimensions by major factor (social welfare, social science majors, and natural science majors) and gender factor of college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by using MANCOVA.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1) while the 3,319 respondents gave relatively high rating on natural sciences in the dimensions of contribution and expertise, they did the same on social sciences in the dimensions of personal interests

and personal knowledge; (2) in overall comparisons, while the 3,319 respondents gave relatively high rating on social welfare in the dimensions of contribution, prospect and importance, they gave the lowest rating on the expertise of social welfare; (3) in the comparisons with social science disciplines, while the 3,319 respondents gave relatively high rating on social welfare in the dimensions of contribution, prospect and importance, they gave the lowest rating on the expertise of social welfare; (4) when analyzing all the respondent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vector of personal interests, contribution, prospect, importance, expertise, and personal knowledge by status factor, gender factor, and interaction effect factor; and (5) when analyzing only the respondents in college and graduate school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vector of personal interests, contribution, prospect, importance, expertise, and personal knowledge by only major factor and gender factor.

The results provide empirical backgrounds for discussing current image, status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as a discipline in Korea. Indeed, this study provides new meaningful and thoughtful guide for further investigation on the topic. In addition, contributing to clarifying and broadening our understandings about the public's perception on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study discusses the tasks for dealing with expertise issue that is the most vulnerable issue of Korean social welfare discipline and research directions to strengthen and promote social welfare discipline in Korea.

Key words: social welfare, public's perception, identity of social welfare, expertise of social welfare.

[접수일 2005. 6. 7 게재확정일 2005. 7. 29.]